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3. 1. 6.(금) 배포 시 | 배포 일시 | 2023. 1. 6.(금) |
| 담당 부서 |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| 책임자 | 과 장 유재형 (044-201-2531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김정주 (044-201-2537) |

경기 포천 도축장 출하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

-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-

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이하 중수본)는 1월 5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도축장에 출하된 어미돼지*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
* 출하된 어미돼지 20마리 중 6마리 양성 확인(1.6.)

이에 따라 중수본은 해당 도축장 및 출하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및 출입 통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, 오염원의 확산방지를 위해 1월 6일(금) 12시부터 1월 8일(일)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북부(철원 포함) 및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·도축장·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(Standstill)을 발령하고, 집중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.

출하농장 및 가족농장(4호)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,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이 방문했던 농장(275호)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한다. 특히 경기·강원 북부 및 인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다.

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살처분, 이동제한 및 집중 소독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.